

우·러 전쟁 및 나토 관련 환구시보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나토의 “北約亞太化” 對 중국의 “引狼入室”*

최 태 훈

(건국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론을 기반으로 우·러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나토가 제기한 '중국 위협론'이 환구시보 사설에 의해 '나토 위협론'으로 전이된 담화 실천 양상을 탐구하였다. 우·러 전쟁 발발 직후의 사설 1편과 '나토(北約)'가 제목에 언급된 4편의 사설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우·러 전쟁 국면에서 환구시보 사설이 어떻게 미·나토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지 기술하고 해석한다. 둘째, 환구시보 사설이 우·러 전쟁의 원인을 미·나토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셋째, 나토의 아·태화 전략에 맞서 환구시보 사설이 나토와 관련 국가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는 담화 질서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나토의 “北約亞太化” 전략에 맞선 중국의 “引狼入室” 대항 이데올로기 구축 과정을 보여준다.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담화 질서를 구축하는 사회·문화 관행은 미·중 갈등 구조가 우·러 전쟁 국면에서 미·나토 對 중·러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주제어 : 우·러 전쟁, 나토, CDA, 北約亞太化, 引狼入室

* 이 논문은 2022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연구방법론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론을 통해 우·러 전쟁과 나토 관련 환구시보 사설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CDA는 언어, 이데올로기, 권력의 삼각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기술하고, 고안된 담화를 해석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설명한다(김해연 2016; Fairclough, 1995/2004). CDA 관점에서 언어는 권력을 나르는 수레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담화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계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Fairclough & Fairclough 2012/2015:187). 정치 미디어 담화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의견을 반복적으로 생산·재생산하여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 이때 담화는 미디어 생산자가 지닌 미디어의 권력과, 사회 질서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Fairclough 1995/2004). 정치 미디어 담화의 사례인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 정부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정부 정책·전술의 선전·선동을 위해 다양한 언어적 장치로 특정 인식틀(frame)을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최태훈 2022:248).

환구시보 사설을 의사소통 사례로 분석할 때는 사설에서 무엇이 은폐되고, 조작되고, 부재(absence) 또는 배제(exclusion)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전경화(foregrounding)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엇이 배경화(backgrounding)되어 시선에서 멀어져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이원표 1995). 정치 미디어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조작(manipulation)과 이데올로기(ideology)”이다(Fairclough & Fairclough 2012/2015:173). 조작은 메시지의 수신자를 의도적으로 은밀히 속여 메시지 발신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데올로기는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 변화를 통해, 우세한 사

회 집단이 지배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며 연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데올로기가 인식되지 않고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Fairclough & Fairclough 2012/2015:182).

CDA는 텍스트들이 원래 부여되었던 서사구조에서 재맥락화 과정을 거칠 때 각각의 단계에서 텍스트들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어떤 요소에 어떤 비중이 부여되었는지 그 ‘선택’에 주목한다. 재맥락화는 기존의 담화 질서를 변형시켜 특정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인식 틀을 부여하여 새로운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맥락화를 위한 정치 미디어 담화의 언어 도구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수사법은 1) 은유, 2) 함축, 3) 인용, 4) 은폐/배제/부재가 있다.

첫째, 은유는 설득력 있는 정의(definition)로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Fairclough & Fairclough 2012/2015). 이를 통해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목표 영역(target domain)의 개념을 연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쉬운 근원 영역(source domain)의 개념에 대응하여 메시지 수신자에게 새로운 인식틀(frame)을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사법이다(임지룡 2006). 둘째, 함축은 지시 대상을 특정하진 않지만, 맥락상 지시 대상을 알 수 있는 내포와 암시의 기능이 있는 언어 전략이다(최윤선 2014). 정치 담화에서는 함축이 흔히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지시 대상에 대한 ‘취소 가능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상대가 항의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발뺌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셋째, 전문가 또는 권력자의 텍스트를 인용하는 것은 권위를 부여하여 조작을 용이하게 도와준다(최윤선 2014). 텍스트에 권위자의 발언이 인용되어 삽입되면 때로는 그 정치 담화가 조작이거나 거짓 일지라도 설득력을 높여준다. 넷째, 정치 미디어 담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레임 중에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은폐/배제/부재이다. 미디어는 “현실의 일부 측면들은 배제하고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구성”(이재신·김지은·류재미·강재혁 2010:120)

방식으로 텍스트를 디자인한다. 은폐는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 배제는 포함시키지 않고 빠뜨리는 것, 부재는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뜻하며 이들은 조작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설들이 담화 질서를 구축하는 사회·문화 관행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러 전쟁 국면 이전의 미·중 갈등 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홍콩,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비난(name & shame)하는 것이다(장기영 2018). 이를 통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을 확대했다. 미국의 중국 인권 문제 공개적 비난하기 전략에 맞서 중국은 ‘책임전가(blame)’ 전략으로 미·서방을 공격해 왔다(장기영 2018). 책임전가는 문제가 있는 일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각개격파(divide & conquer)는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적을 여러 개로 각각 나누어 분산시킨 후 분열시켜 상대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유럽국가들의 다양한 전략적 이해, 각기 다른 중국에의 의존성, 유럽통합이나 미국과의 연대에 대한 반감 정서들을 이용하여 민주 국가 들을 각개격파(divide-and-conquer)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김태형 2021:536)을 기울여왔으며 환구시보 사설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하 ‘우·러 전쟁’으로 표기)이 시작된 이후 6월 30일 나토 정상회의 시기까지, 127일 동안 발표한 사설 가운데 5편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설은 <표 1>과 같다. 우·러 전쟁 시작과 동시에 발표된 상징성 있는 사설 1편과 ‘北約(나토)’ 어휘가 제목에서 언급된 4편을 포함해 전체 5편의 사설을 선별하였다. 해당 기간(2022.02.24.-06.30.)에 발표된 사설의 총수는 98편이며, 이 가운데 ‘미국’ 또는 ‘워싱턴’을 언급하며 비난한 사설이 대부분으로 88편에 달한다. 이를 보면 환구시보의 관심은 미국에 편중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설을 통해 대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 5편의 사설 역시 미국과 나토(나

토는 미국을 포함한 기구임)의 선제적 행동에 맞선 환구시보의 이데올로기 대응이 중심이 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러 전쟁 국면에서 환구시보 사설은 미국·나토 국가들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기술하고 해석한다. 둘째, 해당 사설이 우·러 전쟁의 원인을 미국·나토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셋째, 나토의 아·태화 전략에 맞선 환구시보 사설의 ‘引狼入室’ 대항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을 고찰한다.

〈표 1〉 나토 관련 주요 사건과 환구시보 사설 제목

발간	주요 사건	사설 제목
2/25	2022.02.24. 우·러 전쟁 발발 후, 미국 “우크라이나 인민 국가수호 지지”, “인도주의 구제제공으로 고통 경감” 발언	自私和虛偽是華盛頓的戰略底色
3/24	2022.03.24. 나토 긴급 정상회의 소집: “중국이 거짓 정보로 러시아 지원”	碰瓷中國, “腦死亡”的北約就能續命了嗎
4/29	2022.04.27. 트리스 영국 외무장관 중국 겨냥 연설: “인도태평양 위협 저지”, “대만 자위권 확실한 보장” 촉구	“北約也應保護臺灣”? 英外相又做帝國舊夢
5/6	2022.05.05. 기시다 총리 영국 방문 존슨 총리와 양국군 ‘상호접근’ 원칙적 합의. 존슨: “인도-태평양에 대한 영국의 약속”, 기시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동아시아”	日本不要成爲 “北約亞太化”的帶路黨
6/28	2022.06.28.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개최. 중국을 “도전”으로 분류	亞太國家不應站在北約的危牆之下

II. 공개적 비난하기(name & shame)

1. 미국 “拱火者” 이미지 만들기

2022년 2월 24일 우·러 전쟁이 발발한 후 환구시보는 25일 「自私和

虛偽是華盛頓的戰略底色(이기주의와 위선이 워싱턴의 전략적 본색이다)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그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주장한다. 3501개의 댓글 수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글이다. 해당 사설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自私(이기주의, 3회)’, ‘私利(사리, 3회)’, ‘利益(이익, 3회)’, ‘戰略(전략, 6회)’ 등이 다수 언급되었다. 즉 현 사태의 책임이 다른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사리와 이익을 채우(‘從危機中漁利’)는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비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정적 의미의 4자 성구의 사용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自以為是(독단적인), 坐享其成(가만 앉아서 남이 고생해 얻은 성과를 누리다), 招搖過市(사람들 앞에서 뽐내며 거리를 지나가다), 始作俑者(惡例를 창시한 사람), 拉幫結派(패거리를 짓다), ‘爲虎作倀(나쁜 놈 앞잡이가 되다)’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비난에 사용된 4자 성구 가운데 ‘火’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즉 ‘火上澆油(불 위에 기름을 뿌리다)’, ‘火中取栗(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이용당하다)’, ‘煽風点火(선동하여 사건을 일으키다)’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와 더불어 ‘戰火(전화)’, ‘火坑(불구덩이)’, ‘拱火者(불을 돋우는 사람)’ 등은 ‘火’를 통하여 ‘전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華盛頓習慣了做一個幾乎沒有成本的拱火者(워싱턴은 거의 힘도 들이지 않고 불을 돋우는 사람이 되는데 익숙하다)

여기서 ‘拱火’는 불이 났는데 부채질하여 불을 돋우며, 불을 부추기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추기는 행위를 할까? 이유는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火’가 전쟁이면, 이런 식의 전쟁을 수행하려는 국가는 미국이며, 이런 국가는 이기적이며 위선적(사설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사설은 미국과 연관되어 국제 분쟁이 있었던 나라를 줄줄이 언급한다(阿富汗, 伊拉克, 巴基斯坦, 也門, 索馬里, 菲律賓, 利比亞和叙利亞). 이를 통해 반복된 ‘火’와 다수의 분쟁을 연결시켜 미국 비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사설에 골고루 분포한 ‘火’자(전체 9단락에서 5개 단락에서 ‘火’가 보임)는 마치 지구상의 분쟁 지역을 ‘火’로 표시하는 분쟁 지도와 같이 보인다. 정치 담화에서 내포와 암시를 뜻하는 함축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그 취소 가능성 때문이다(최윤선 2014). 본 사설은 ‘火’=‘전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火’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독자에게 남겨놓은 것이다. 전쟁의 참상을 ‘火’를 사용하여 연상시키고 반복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전쟁’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피해 당사자가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그런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참고로 시진핑·바이든의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의 발언으로 유명한 “玩火自焚(불장난하면 불에 타죽는다)”¹⁾에도 ‘火’가 보인다. 이 발언 역시 ‘火’를 통해 전쟁을 함축하고 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미국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반복 사용된 부정적 어휘·4자 성구, ‘火(불)’을 사용한 함축 등은 미국이 “拱火者”라는 환구시보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 나토 “腦死亡” 이미지 만들기

환구시보는 3월 24일 「碰瓷中國, “腦死亡”的北約就能續命了嗎(중국을 고의로 갈취하여, “뇌사”한 나토가 연명할 수 있을까)를 발표한다. 나토를 비난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제목에서부터 읽히고 있다. 먼저 ‘碰瓷’ 사용으로 그 비난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어휘는 사기꾼이 일부러 부딪혀(碰) 자신의 도자기(瓷)를 깨고, 그것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

1) 이준희(2022.07.31.), 「왜 중국은 대만 코앞에서 실탄을 퍼부었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93853_35680.html (검색일: 2022.08.08.)

해 돈을 갈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碰瓷’는 나토가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제목의 “腦死亡”은 식물인간과 같이 수명이 경각에 달린 나토를 은유하고 있다. 사실 본문 네 번째와 마지막 단락은 “腦死亡”을 포함한 나토와 관련된 다양한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早就被認為“腦死亡”的北約需要找到更大號的救命呼吸機…它生怕再不“插管”的話隨時都可能斷了那口氣(일찍이 “뇌사” 되었다고 여겨지는 나토는 더욱 큰 인공호흡기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나토의 삶은 다시 “삽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俄烏衝突是給了北約一次“電擊”，但他不會收回有關北約“腦死亡”的說法。的確，“急救”或許能刺激一時的心跳，但絕對治不了北約的重症。想通過操弄中國議題得到續命仙丹，那純粹是高燒驚厥中做的白日夢。(러·우 충돌이 나토에 전기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마크롱)는 나토의 “뇌사”에 대한 언급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확실히 “응급조치”는 아마도 일시적인 심장 박동을 자극할지 몰라도, 나토의 증상은 결코 고칠 수 없다. 중국 의제 조작을 통해 연명하려는 선단(약)을 얻으려는 것은, 그것은 순전히 고열로 인한 공포 속에서 꾸는 백일몽인 것이다.)

〈표2〉 “腦死亡” 관련 은유 정리

근원(Source) 영역	목표(Target) 영역
“腦死亡(뇌사)”	연명이 어려운 나토
救命呼吸機(인공호흡기)	전쟁
“插管(삽관)”	전쟁 공포 강제 전파
口氣(숨)	나토의 마지막 지속력
“電擊(전기충격)”	러·우 충돌
“急救(응급조치)”	나토가 지속되게 하는 조치
北約的重症(나토의 증상)	나토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
仙丹(선단 약)	나토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묘책,
白日夢(백일몽)	나토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헛된 생각

<표2>는 예문에서 사용한 은유를 정리한 것이다. 결국 사설은 나토가 역사적으로 명을 다한 냉전의 산물이며, 전쟁의 공포로 연명을 하려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의 발언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강조되어, 나토가 연명이 불가능한 상태의 조직임을 서구 지도자의 입을 통해 독자가 믿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이처럼 신문 사설의 “직접인용”은 정치 담화 이데올로기 확산의 언어 장치로 자주 사용된다. 필자의 목소리와 “직접인용”된 제 3자의 목소리가 섞여 사설의 내용이 재개념화되면서 재맥락화된다. 이를 통해 필자의 주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신문사의 이데올로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이원표 2001, 2015). 또한 특정 언어 표현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설의 직접인용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마크롱 발언의 직접인용은 환구시보의 조작으로 밝혀졌다. 본 사설 마지막 단락의 “腦死亡”은 2019년 12월 마크롱 발언에 근거한 것이다.²⁾ 즉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피는 상황에, 마크롱은 ‘腦死亡’에 대한 언급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이야기한다. 따라서 ‘腦死亡’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2022)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표현이다. 반면 마크롱의 “전기충격(電擊)” 발언 시점은 2022년 3월 17일이다.³⁾ 즉 전쟁 발발 이후의 발언이다. 따라서 “러·우 충돌이 나토에 전기충격을 주었으나, 그(마크롱)는 나토의 “뇌사”에 대한 언급은 철회하

2) 박대환(2019.11.08.), 「佛 마크롱 대통령 “나토는 현재 ‘뇌사’ 상태” 비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8006000085> (검색일: 2022.07.26.)

김용래(2019.12.04.), 「마크롱 “나토뇌사 발언 유지…러시아와 대화 나서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03400081> (검색일: 2022.07.27.)

3) POLITICO(2022.03.17.), 「War in Ukraine is ‘electroshock’ for NATO, says Emmanuel Macron」, <https://www.politico.eu/article/emmanuel-macron-tells-russia-war-causes-electroshock-for-nato/> (검색일: 2022.08.20.)

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는 기술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2019년의 발언을 2022년의 발언으로 믿게 만든 것이다. 환구시보가 이와 같은 조작을 한 이유는 서구 지도자의 발언을 이용하여 나토 무용론을 설파하고, 나토 비난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3. 일본 ‘帶路黨’, 한국 ‘酒駕的人’ 이미지 만들기

5월 6일 환구시보는「日本不要成爲“北約亞太化”的帶路黨(일본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를 주도하는 길 안내 간첩이 되지 말라)」를 발표한다. 제목을 살펴보면 ‘帶路黨’이란 표현이 보인다. 이것은 일본을 은유한 표현이다. 바이두를 검색해보면 “帶路黨은 적이 침입해 올 때 간첩이 되어 길을 안내하는 사람(敵人打進來時的當奸細“帶路”的人)”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帶路黨’ 관련 바이두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八國聯軍侵華時，已有不少中國民衆充當前驅，充當八國聯軍的帶路黨(8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이미 적지 않은 중국 민중이 선봉을 맡았고, 8국 연합군의 길안내 간첩을 맡았다).

예문은 의화단 사건의 결과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점령(1900)한 사건을 ‘帶路黨’과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아편전쟁(1840) 이후 100년간 이어온 중국의 암울한 역사 ‘민족 굴욕의 세기’(유동원 2018:56-57)를 연상하게 하는 예문이다. 사실 知乎(한국의 ‘지식인’에 해당)를 살펴보면, ‘帶路黨’은 인터넷 용어이며 처음 사용된 것은 2010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따라서 ‘帶路黨’과 ‘8개국 연합군 중국점령 사건’과는

4) 帶路黨該詞產生於2010年美國與韓國數次聲稱要在黃海進行軍事演習，美國航母要進入黃海期間，網上有入聲稱美軍如果入侵中國，他們就要給美軍帶路。帶路黨一詞近來頗爲流行，不但常見於國內網絡紙媒，亦曾引起外國媒體“關注”。

연관성이 크게 없다. 해당 예문은 민족 굴욕의 세기를 극복하여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바이두가 편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이후 아·태화)에 ‘帶路黨’을 같이 쓴 것도 의도가 있는 제목 선정인 것이다. 즉 본 사실의 제목은 중국인에게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점령(1900)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함축인 것이다. 이런 함축 수사법이 사용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일본 비난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굴욕의 역사가 상기되는 길 안내 간첩이라면, 일본에 대한 나쁜 놈 이미지는 최고가 된다. 둘째, 인민의 결집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굴욕의 역사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함축을 통해 인민에게 전달하고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체면을 차렸다. 민족 굴욕의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중국의 트라우마가 밖으로 노출되게 된다. 그것은 자칫 중국이 미·서방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환구시보는 함축으로 중국의 두려움을 표면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며 체면을 차리고 있다.

환구시보는 6월 28일 「亞太國家不應站在北約的危牆之下(아·태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말아야 한다)」를 발표한다. 본 사실은 나토에 협조하는 아·태 국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비난의 핵심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한 한국이며, 특히 ‘한국’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함축으로 비아냥대고 있다.

和北約組織的主動或被動靠近…這勢必傷害與中國的戰略互信，不可避免地要付出代價…倘若一邊與北約打得火熱，一邊有意無意把冷戰禍水引入亞太，這“就和那些雖然喝了酒，但堅持說自己沒有酒駕的人一樣”(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나토 조직과의 접근…이러한 형세는 중국의 전략 상호신뢰에 반드시 손해를 입히며,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약 한편으로 나토와 가까워지고, 한편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냉전의 화근을 아태에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비록 술은 마셨지만, 자기는 음주 운전하지 않았다고 견지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위 예문은 한국에 ‘음주 운전자(酒駕的人)’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과정이 뚜렷이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한발 더 나아가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음주 운전자’의 이미지를 한국에 부여하고 있다. 먼저 “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主動或被動)”, “의도가 있든 없든(有意無意)”은 한국의 갈팡질팡하는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은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付出代價)며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한국과 음식을 연계시켜 비난한 사례는 2017년 9월 6일 「完成部署薩德的韓國決不會更安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민감한 시기였다. 사실은 “韓國那些保守主義者是不是吃泡菜吃糊塗了(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치 먹고 정신이 나갔는가)?라는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환구시보는 한국을 비하할 때 뭔가 잘못 먹고 정신이 나간 대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는 나토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한국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환구시보는 한국을 ‘술 잘못 먹고 미친놈(술은 마셨으나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이미지화한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 음주 운전자가 ‘한국’이냐고 따지고 들면, 결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도록 ‘한국’이란 어휘를 남겨놓지 않았다. 즉 언제든지 발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치 담화에서 함축은 발언자의 숨은 뜻에 포함된 책임을 회피하기 좋은 언어 전략이다.

III. 책임 전가(blame)

1. ‘戰爭’ 어휘 회피와 ‘러시아’ 배제·러시아 피해자 만들기

2022년 2월 2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표된 98개의 환구시보 사설을 전부 조사해 보면 ‘俄烏戰爭(러·우 전쟁)’ 혹은 ‘烏俄戰爭(우·러 전쟁)’이란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즉 ‘戰爭’이란 어휘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兩 국가를 호칭하는 순서에서는 ‘러시아’가 항상 우선되었다. 따라서 ‘俄烏衝突(러·우 충돌)’이 5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俄烏局勢(러·우 정세)’, ‘俄烏危機(러·우 위기)’ 등은 각각 8회, 4회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편에 서서 현재의 사태를 ‘衝突’로 보고, ‘戰爭’이란 어휘 사용을 고의로 피하여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격상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일종의 은폐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환구시보는 전쟁이 시작되고 발표된 2월 25일 첫 번째 사설에서부터 정부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5개의 사설을 조사해보면, ‘러시아’가 언급된 횟수가 15회로 매우 적다. 위에서 언급한 ‘俄烏衝突 7회’, ‘俄烏局勢’ 1회 사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7회에 불과했다. 그 7회도 수세에 몰린 러시아, 억울한 러시아, 불쌍한 러시아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讓俄羅斯成爲國際舞台上的“棄兒”(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버려진 아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2/25)

“中國正在通過傳播謊言和虛假信息對俄羅斯給予政治支持”(“중국이 거짓과 허위 정보를 퍼뜨려 러시아에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다”)(3/24)

試圖“敲打”印度不要購買俄羅斯的石油(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도록 “말로 자극하기”를 시도했다)(4/29)

즉 환구시보는 ‘러시아’란 이름을 배제시켜 언급을 회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를 피해자로 만드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나토에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2. “俄烏衝突”의 책임은 미국과 나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발발했을까?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와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껴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나토로 편입되면서 전략적 완충지역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러시아의 두려움을 합리화해준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민족 구성에 러시아계가 많고, 이들이 정통 우크라이나계에게 탄압 받아 이들의 해방이 절실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 침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을 통합하고, 동시에 주변의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과 거대한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구상의 시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유라는 것이다⁵⁾. 대제국 건설은 ‘Make Russia Great Again’ 꿈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크림전쟁(1853-56)과 같은 맥락으로 러시아의 팽창정책(남하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공통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우·러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의 침공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미국과 나토에 돌렸다.

5) Foreign Affairs(2014.03.31.), 「Putin’s Brain: Alexander Dugin and the Philosophy Behind Putin’s Invasion of Crimea」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fsu/2014-03-31/putins-brain> (검색일: 2022.08.09.)

它…就是美國出於戰略自私和短視種下的一個“苦果”(그것(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전략적 이기심과 근시안에서 나온 “쓰라린 결과”이다).(2/25)

北約這個烏克蘭危機的主要推手，有什么資格對一直勸和促談的中國指手畫腳?(우크라이나 위기의 주요 추동 세력 나토가 무슨 자격으로 줄곧 화해를 종용해온 중국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가?)(3/24)

烏克蘭局勢…并不足以填滿美西方一些國家從中撈取政治利益的胃口(우크라이나 상황은…미·서방의 일부 국가들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5/6)

北約直接催生并不斷強化了歐洲的安全困境，俄烏衝突的爆發是其惡果的現實體現(나토는 유럽의 안보 어려움을 직접 촉진하고 또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러·우 충돌의 폭발은 그 사악한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난 것이다).(6/28)

2월 25일 사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다. 3월 24일 사설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이 나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5월 6일 사설은 미국과 서방을 한꺼번에 묶어서 비난하고 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넘어선 더 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전쟁의 책임이 미·서방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6월 28일 사설은 다시 한 번 나토에게 이 전쟁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에 Ⅲ-1에서는 ‘전쟁’ 어휘 사용을 회피하고 러시아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었다. 반면 이번 절의 예문들은 환구시보가 책임 전가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 때문이라고 전쟁의 원인에 대해 재맥락화를 수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우·러 전쟁은 당연히 러시아가 일으킨 도발이며 러시아는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범죄국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러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략적인 이기심과 정치적 세력 확대를 위해

미국과 나토가 촉발시킨 것으로 선전한다. 따라서 환구시보 사설에 노출된 독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나토라고 믿게 된다. 러시아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미국과 나토의 잘못만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전략인 것이다.

3. 나토의 ‘중국 위협론’에 맞선 중국의 ‘나토 위협론’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2021년 6월 14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각국 정상들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처음 규정했다. 이 가운데 55번 항에서 “중국이 드러낸 야망과 확신에 찬 행동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와 나토 안보에 systemic challenges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한다.⁶⁾ 또한 영국 외무장관 트러스는 2022년 4월 27일 런던의 만찬장에서 영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 중 잘못된 선택을 거부하며, 나토의 글로벌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하고, 대만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⁷⁾ 나아가 2022년 6월 28일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는 신판 ‘전략 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2021년 나토 공동성명을 2022년 ‘전략 개념’으로 문서화 한 것으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6) 김정은(2021.06.15.), 「나토 정상회의의 “중국은 구조적 도전 야기…책임 있게 행동하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001800098> (검색일: 2022.07.24.)

7) POLITICO(2022.04.27.), 「UK’s Liz Truss: NATO should protect Taiwan too」 <https://www.politico.eu/article/liz-truss-nato-taiwan-protect/> (검색일: 2022.08.15.) 트러스의 발언 원문 가운데 “We must ensure that **democracies** like Taiwan are able to defend themselves.”이다. 반면 4월 29일 환구시보 사설은 “确保臺灣能够保衛自己(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democracies**’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환구시보가 원문 인용의 내용을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식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⁸⁾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환구시보는 그들 나름의 논리로 위협하는 주체를 중국에서 나토로 바꾸어 비난을 시작한다.

在世界制造危機和戰爭的北約組織， 正企圖將“集團政治”“陣營對抗”那一套複製到亞太地區(세계에서 위기와 전쟁을 만드는 나토 조직이 “집단정치” “진영대결”을 아 · 태 지역에 복제하려 기도하고 있다).(5/6)

作為軍事聯盟的北約絕對是一劑毒藥...亞洲的良好局面決不能被“新冷戰”毀了(군사동맹인 나토는 절대적으로 독약이다...아시아의 좋은 국면이 “신냉전”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5/6)

“引狼入室”的做法害人害己(늑대를 집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5/6)

如果有人把這樣的毒藥往被稱為“世界和平發展的綠洲”東亞地區播散，這種行為既陰毒又惡劣(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독약을 “세계 평화발전의 오아시스”로 불리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음험하고도 악랄하다).(6/28)

對北約亞太化的迎合無異於引狼入室(나토의 아 · 태화에 대한 영합은 늑대를 집에 끌어들이는 꼴과 다름이 없다).(6/28)

冷戰的污水決不能流入太平洋(냉전의 더러운 물이 결코 태평양으로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6/28)

위 예문들은 나토가 전파하는 아 · 태에서의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여, 환구시보가 어떻게 ‘나토 위협론’을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전파하는지를 보여준다. 5월 6일과 6월 28일 사설의 공통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나토의 아 · 태화를 (신)냉전의 확산으로 인식하고 공격한다는 점이다. 특히 6월 28일 사설은 ‘(신)냉전’을 7회 반복

8) 문병기(2022.06.30.),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도전에 공동 대응” 첫 명시,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630/114213596/1> (검색일: 2022.08.01.)

사용했다. 둘째, 이러한 행위를 하는 나토를 독약으로 2회 은유하여 ‘나토 위협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引狼入室’이란 4자 성구를 2회 반복 사용하여 나토를 늑대로 은유하여 ‘나토 위협론’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나아가 나토의 아·태화를 경계하고 있다.

사실의 논리를 따라 읽다보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유럽을 벗어나 아·태화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맞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서방이 주장하는 나토 아·태화의 핵심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4월 27일 트러스의 발언을 소개한 POLITICO의 기사 제목 “UK’s Liz Truss: NATO should protect Taiwan too”을 보면, 나토가 대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5월 6일과 6월 28일 사실 본문 전체에서 대만을 단 1회만 언급했다. 그것도 영국의 발언을 인용문 표시로(“幫助臺灣自衛”) 전달하고 있다. 즉 ‘중국 위협’의 핵심인 대만은 고의로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독자가 ‘나토 아·태화’란 환구시보 사실이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면, ‘引狼入室’의 ‘室’은 臺灣 없는 ‘아·태’로 인식되게 된다. 이에 환구시보는 자신들이 위협적인 부분은 은폐하고, 나토가 위협적인 이유인 ‘(신)냉전’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나토 위협론’의 핵심은 냉전의 귀환, 즉 신냉전 프레임이다. 나의 잘못은 가리고 남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어내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전략이다.

IV. 각개격파(divide & conquer)

1. 방치된 우크라이나 부각하여 미국과 나토 분열시키기

2월 25일 「自私和虛偽是華盛頓的戰略底色」의 궁극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현실을 부각시켜 미국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들을 협박하고,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내용은 해당 예문이다.

西方國家拋棄烏克蘭，任其孤軍奮戰(서방국가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했고, 고군분투하도록 방임되었다).

當危機真正來臨時，當初所謂的“承諾”會成爲繞來繞去的外交辭令(위기가 정말로 도래했을 때, 처음의 이른바 “약속”은 왔다 갔다 하는 외교적 언사가 될 수 있다).

美國干涉到了哪里，衝突、混亂、恐怖主義就出現在哪里…不斷輸出禍亂的國家(미국이 간섭하는 곳마다, 어디에서든 충돌·혼란·테러리즘이 나타난다…끊임없이 환란을 수출하는 국가).

우크라이나는 버려졌고, 고군분투해야 하며, 위기가 왔을 때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오간대 없다. 미국이 간섭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충돌, 혼란, 테러리즘으로 얼룩지고, 끊임없이 환란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 전략은 사실의 마지막 단락에서 극에 달한다.

至於那些依然存在幻想、甚至爲虎作倀的國家和地區，烏克蘭危機是一個很好的提示(여전히 환상에 젖은, 심지어 나쁜 놈의 앞잡이가 된 나라와 지역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위기는 아주 좋은 본보기이다.).

이 마지막 단락은 미국에 협조하는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우크라이나 풀 나지 않으려면 조심해라’의 의미인 것이다. 즉 겁을 주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那些~國家和地區’로 표현하여 그런 국가와 지역이 복수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爲虎作倀(위호작창)’의 ‘虎(호랑이)’는 미국을 은유하는 표현이며, 호랑이에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못된 앞잡이를 창귀(倀: 남이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은유하고 있다.

2. 프랑스 띄워서 미국과 분열시키기

3월 24일 「碰瓷中國, “腦死亡”的北約就能續命了嗎」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나토 “뇌사(腦死亡)” 발언을 인용한다. 환구시보가 마크롱의 부정적 발언을 인용한 것은 나토 구성원 가운데에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미국과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이런 분열 전략은 사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정점을 찍는다. 먼저 인용된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퍼트레이어스의 발언은 미국의 야망을 드러내 보여주는 효과를 일으킨다. 그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나토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讓北約再次偉大: is to Make NATO Great Again)”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위 영문의 ‘NATO’에 ‘America’가 대신 들어가면 트럼프의 선거 구호가 된다. 즉 미국의 야망이 유럽으로 전달되어 나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러 전쟁으로 나토가 다시 위대해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국의 불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불안해진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당연한 전략은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에 환구시보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他不會收回有關北約“腦死亡”的說法(마크롱은 나토의 “뇌사”에 대한 언급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⁹⁾

마크롱은 나토가 “뇌사(腦死亡)”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前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프랑스 대통령의 발

9) 김용래(2019.12.04.), 「마크롱 “나토뇌사 발언 유지…러시아와 대화 나서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03400081> (검색일: 2022.07.27.) 연합뉴스의 보도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이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문제가 되었던 시기임으로 이런 발언이 가능했으며, 우·러 전쟁 발발 이후의 발언이 결코 아니다. 환구시보는 2019년 마크롱이 런던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해 언급한 내용을 2022년 사실에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언을 대비시켜, 미국의 야망을 극대화시키고, 유럽 지도자의 강직한 의견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뇌사”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나토가 믿고 함께 할 동반자가 아님을 강조하여 분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것은 앞선 2월 24일 사설의 텍스트 분석에서 밝힌 분열 이데올로기 전파의 반복 재생산으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3. 쇠락한 영국 만들어 호주·인도·미국과 분열시키기

4월 29일 「“北約也應保護台灣”? 英外相又做帝國旧夢」에서는 영국 외무장관 트러스의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발언을 문제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환구시보는 더 다양한 타국의 목소리를 소개하여 분열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這被澳大利亞的前總理基廷狠批, 稱她簡直是“精神錯亂”, 患上了“自大妄想症”(호주의 키팅 전 총리는 그녀(영국 외무장관 트러스)를 곧바로 정신착란이라 부르고,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다고 혹평하였다).

蘇杰生…隨後拒絕了英方的無理要求.(수브라마냥은…뒤이어 영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다).

印度輿論…稱英國仍是殖民主義心態(인도 언론은…영국이 여전히 식민주의 마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인 호주와 인도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영국의 힘이 이들 국가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이 약해졌으니 은근히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국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반대하라고 부추기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사설은 영국과 영국 외무장관 트러스의 자존심을 건드려 미국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所謂的“全球英國”似乎隻是緊緊抱住美國(“글로벌 브리튼”은 마치 미국만을 단단히 붙잡은 것 같다).

如今怎么看怎么都像“美國國務院駐倫敦辦事處主任”(오늘날 어찌 보아도 어쨌든 “런던 주재 미국 국무부 주임” 같다).

特拉斯…對華盛頓亦步亦趨(트러스는…워싱턴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英國…替華盛頓說出一些它不方便說的話, 做一些它不方便做的事(영국은…워싱턴을 대신하여 미국이 불편해하는 말을 하고, 미국이 불편해하는 일을 대신한다).

사실은 영국이 약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에 붙어먹는다고 폄하하고 있다. 영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내용인 것이다. 즉 영국과 미국을 분열시키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나약한 영국이 무슨 제국의 옛꿈을 꾸며, 그 주제에 대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식민지였던 호주·인도에겐 영국의 힘이 전달 안되고, 강한 미국에겐 영국 스스로 굴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해진 영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환구시보의 전략은 자기편에게는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암묵적인 자신감을 주고, 상대방은 분열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4. 군국주의 공포 조성하는 일본과 아·태 국가 분열시키기

분열 전략은 5월 6일 「日本不要成爲“北約亞太化”的帶路黨」에서도 보인다. 나토의 아·태화를 이끄는 주축 세력은 미국이다. 이 전략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나라는 영국이며, 전략이 성공하도록 길 안내 간첩의 역할은 일본이 맡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토의 지향을 지지해야 하는 환구시보는 일본과 아·태 국가 사이에 분열을 조장한다.

其到訪的亞洲國家對此普遍保持了警惕, 沒有與之唱和(일본이 방문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보편적으로 경계를 유지하고, 그

에 화답하지 않았다).

那些嘴上天天挂着“今日烏克蘭或是明日東亞”的國家…亞洲各國對此必須予以高度重視(“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동아시아”를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나라는, …아시아 각국은 이에 대해 반드시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警惕、拒絕“北約亞太化”應成爲地區各國的強大共識和集體意識(“나토의 아·태화”를 경계하고 거절하는 것이 지역 각국의 강한 공감대와 집단 의식이 되어야만 한다).

환구시보는 평화헌법의 속박을 벗어나 군국주의를 다시 꿈꾸는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일본이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동아시아”라고 전쟁을 조장한다면, 아시아 각국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여러 나라는 나토의 아·태화를 반대하고, 그 침병인 일본과도 거리를 뒤흠만 하는 것이다. 사설은 이와 같은 논리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이들 통해 일본과 갈라서도록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

5. 한국·일본에 강요하여 미국·나토와 분열시키기

6월 28일 「亞太國家不應站在北約的危牆之下」는 아·태 국가들에게 보란 듯이, 나토 내의 다양한 분열 사례를 전파하기 시작한다. 본 사설은 환구시보 분열 전략의 종합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法德等國認爲應該使用更有分寸，更謹慎的說辭來描述中國(프랑스와 독일 등의 나라는 지나치지 않고 실제와 겹맞게 또 더욱 조심스런 언사로 중국을 묘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法國總統馬克龍此前就曾警告…北約不應…在與中國的關係上形成“偏見”(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에 일찍…나토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편견”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立陶宛和葡萄牙的外交官也表達了他們對過於關注中國的擔憂(리투아니아와 포르투갈 외교관 또한 그들이 중국에 대해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這種“激烈討論”本身，就足以表明“中國威脅北約”的說辭多么荒謬(이러한 “격렬한 토론” 자체가 “중국의 나토 위협”이란 표현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격렬한 토론(激烈討論)”은 4월 29일 사실의 ‘격렬한 논쟁(烈的爭論)’을 연상시킨다. 모두 ‘激烈’이란 어휘를 사용하여 분열의 양상을 부각하려 하고 있다. 위 내용은 중국을 어떤 식으로 묘사할 것인지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내용이다. 등장 국가는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등 나토 회원 가운데 강대국과 약소국을 불문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제각각 목소리를 내어 서로 의견이 달라 분열하는 나토의 모습을 또 다른 청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 청자는 아·태 지역의 여러 나라이며 따라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日本、韓國、澳大利亞和新西蘭特別是日韓都**不該**出現在北約峰會的會場上(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는 특히 일본과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의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야 했다).

亞太國家**必須**從正確的角度去吸取歐洲的教訓(아·태 국가는 반드시 정확한 각도에서 유럽의 교훈을 섭취해야 할 것이다).

對於亞太國家來說，警惕并反對“北約亞太化”，是**必須**擦亮眼睛看清楚的大是大非。(아·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나토의 아·태화”에 대해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눈 닦고 분명히 봐야 할 근본적인 시비와 선악이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꼬집어 나토 정상 회의에 나타나지 말았어야(不該出現) 했다고 주장한다. 환구시보는 이

번에는 일종의 협박성 표현으로 한국과 일본에 나토와 결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협박은 가장 노골적인 분열 전략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서도 이러한 강요가 ‘必須’라는 어휘로 대변된다. 아·태 국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이 유럽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必須’가 또 등장한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눈 잘 닦고 뭉가 옳은지 똑바로 봐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나토와 아·태 국가, 특히 한국·일본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분열 이데올로기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대편이 집단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중국은 아편전쟁(1840-42), 청불전쟁(1884-85), 청일전쟁(1894-95) 등을 겪어왔다. 이것은 모두 청나라와 상대국의 1대1 싸움이며, 그 전쟁터가 변방 혹은 국외였다. 그러나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결성된 8개국 연합군과 중국의 싸움은 앞선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의 패배는 당연했으며 북경 함락이라는 굴욕을 당하게 된다. 이에 중국은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신축조약(1901)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인의 머리속에는 서양 세력의 집단화에 대한 공포가 있으며, 그 집단화하는 세력을 와해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 전파는 환구시보 사설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토 관련 사설의 저변에는 항상 분열 전략이란 프레임이 짙게 깔려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우·러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나토가 제기한 ‘중국 위협론’이 환구시보 사설 텍스트에 의해 ‘나토 위협론’으로 전이된 담화 실천 과정의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나토의 “北約亞太化” 전략에 맞서 중국은 “引狼入室” 대항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그렇다면 환구

시보는 어떻게 아·태 지역에서 ‘나토 위협론’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선 환구시보 사설들은 우·러 전쟁 국면에서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러·우 충돌’로 완곡하게 표현하여 전쟁의 현재성을 독자들의 시야에서 흐릿하게 배경화(backgrounding)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자들 시선의 전경(foregrounding)에는 두 개의 개념이 배치된다. 하나는 미국과 나토를 공개적으로 비난(name & shame)함으로써 우·러 전쟁의 원인은 미국과 나토에 있다고 책임 전가(blame)한다. 다른 하나는 나토의 아·태화로 인한 대만 위기에 맞선 중국의 대항 이데올로기인 ‘나토 분열 전략’이 위치한다. 즉 ‘담화 질서’(orders of discourse)는 재편 과정을 거쳐 미·나토가 제기한 ‘우·러 전쟁’을 ‘러·우 충돌’로, ‘중국 위협론’을 아·태지역에서 ‘나토 위협론’으로 재맥락화된다. 이로써 우·러 전쟁은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미·나토 對 중·러 대결 국면으로 확장되어 이데올로기 전쟁의 양상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담화 질서 재편에 대한 작동 방식을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적용해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 우·러 전쟁 국면에서 관련 환구시보 핵심 사설 5편이 누구를 어떻게 공개 비난하였는지 추적하였다. 1) 미국, 2) 나토, 3) 나토에 협조하는 아·태 국가 일본·한국이 공개적 비난하기(name & shame)의 대상이 되었다. 공개적 비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게 “拱火者”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먼저 환구시보는 직설적이고 악의적 표현과 사자성어를 통해 맹렬히 미국을 비난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 사설은 火上澆油, ‘火中取栗’, ‘煽風点火’, ‘戰火’, ‘火坑’, ‘拱火者’ 등을 사용하였다. ‘火’는 ‘전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참고로 시진핑은 ‘玩火自焚(불장난하다가 불에 타죽는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미국을 협박한다. 모두 ‘火’로 전쟁을 함축한다. ‘拱火者’는 불난 곳에 부채질하여 불 돋우는 자를 말한다.

전쟁 난 곳에 전쟁을 더하라고 부추기는 나라,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비난한다. 사실은 그런 나라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나라라고 맹비난한다.

둘째, 나토에 腦死亡(뇌사), 식물인간 이미지를 부여했다. 본 사실의 조작적 담화(manipulative discourse)에 합리화와 정통성을 부여하는 언어 장치로 ‘인용’과 ‘은유’가 사용되었다. 마크롱이 “나토가 뇌사 상태”라고 2019년에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 공세를 뚫을 때 했던 말을, 마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말한 것처럼 사실에서 인용하여 시점에 대한 착시효과를 주었다. 나토가 뇌사 상태라는 것이 환구시보가 꾸며낸 이야기기가 아니라 마크롱이 직접한 말로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냉전이 지나가고 이미 용도 폐기처분 당해야 마땅한 나토를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산소 호흡기를 주어 나토를 연명하게 하는 것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부당함을 설득한다.

셋째, 나토의 아·태화에 협조하는 아·태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비난한다. 5월 6일 사실은 일본에게 “帶路黨”의 이미지를 심어 비난하였다. “帶路黨”은 적이 침입해 올 때 적을 도와 길을 안내하는 간첩을 뜻한다. 사실은 ‘帶路黨’이란 매개를 써서, 독자로 하여금 ‘나토의 아·태화’가 1900년 서구 8개국 연합군의 중국점령 사건과 오버랩 되도록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사실은 은유와 함축의 장치를 통해 일본의 행위를 비난한다. 6월 28일 사실은 한국에게 ‘酒駕的人(음주 운전자)’ 이미지를 심어 비난한다. 환구시보는 한국을 비난할 때 음식과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드 관련 2017년 9월 6일 사실에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치 먹고 정신이 나갔는가?’라는 막말을 남겼다. 사실은 나토 문제로 중국과 쟁점이 형성된 한국을 대상으로 ‘술 마시고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즉 ‘술 잘못 먹고 미친놈’의 이미지를 만들어 비난하고 있다.

Ⅲ장, 본 장에서는 비난을 거쳐 책임을 전가하는 환구시보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책임 전가 전략은 먼저 ‘러시아’ 감싸기로부터 시작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러·우전쟁/우·러전쟁’ 등의 ‘전쟁’을 사용한 용어 또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러시아를 앞에 배치하는 ‘러·우 충돌’로 러시아를 편들고 면죄부를 준다. 그 결과 자연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나토’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둘째, 우·러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 견해는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게 묻는 대신 ‘미국과 나토’ 탓으로 돌린다.

셋째, 국경이 전혀 걸쳐있지 않은 나토가 아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실은 아·태 지역의 위협 세력은 ‘중국’이 아니라 ‘나토’라며 ‘나토 위협론’을 선전·선동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신)냉전 프레임을 구축하여 미·나토를 비난하고, 나토가 독약이라고 은유하며, 나토의 아·태화를 돕는 세력을 ‘引狼入室’로 규정하여 책임 전가한다.

IV장, 나토 연합 세력에 대응해 중국이 구사한 전략은 나토 각개국파(divide & conquer)이다. 따라서 사실은 미국과 나토 분열, 미·나토와 프랑스 분열, 영국과 호주·인도 분열, 아·태 국가와 일본 분열, 나토와 한국·일본 분열을 조장한다. 환구시보는 적군끼리 분열하도록 서로 갈라치는 담화를 구축한다. 이러한 나토 분열 담화 만들기는 중국의 기저적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의화단 사건으로 8개국 열강이 단합해 중국에 맞서 싸웠던 사례이다. 신축조약으로 종결된 본 사건은 중국의 수치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움과 말도하기 싫은 수치심은 중국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 때문에 사실의 어느 곳에서도 의화단 사건과 신축조약에 대해 직접 언급이 없다. 미·나토 및 아·태 국가의 연합을 분쇄하기 위해 환구시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상대의 결집을 최대한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 강대국의 꿈 ‘중국몽’,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등 이른바 ‘Make China Great Again’을 뜻하는 서사가 담화 질서 구축에서 철저히 배제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나토의 아태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서구 열강의 피해자로 위치 시켜야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로 보일 수 있는 중국의 강대국 꿈 의도만큼은 사설의 텍스트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만 한다. 상대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하고 내가 위협적인 존재인 것을 상대가 알도록 드러내면 안 된다. 자신의 본색을 은폐해야 상대가 안심하고 분열하고, 각개격파가 수월해진다.

우·러 전쟁 국면은 이전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나아가 미·나토 對 중·러 및 그 세력권의 패권 경쟁으로 국제 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一帶一路’ 정책은 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기타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업 생산품을 구매력 있는 시장에 팔기 위한, 에너지·기타 자원 및 시장 확보 정책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의 ‘一帶一路’ 정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일단 구매력이 있는 서유럽과 러시아의 단절을 초래했다. 즉 중국→러시아→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라인은 차단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다. 이제 중국이 서유럽으로 가는 육상 실크로드의 터키에 라인 밖에는 없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중국은 자신의 물건을 사줄 구매력 있는 시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결집한 나토가 아·태화에 성공하여 대만 문제에도 간섭하게 된다면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에서도 힘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을 낮아질 것이고, 실업을 촉발시켜 중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우·러 전쟁에 대한 수많은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 상황을 미국이 구사하는 對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현시점의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어지러워지면 한국은 기회가 왔다. ‘Make Korea Great Again’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태형(2021), 「미-중 경쟁 격화와 유럽의 선택」, 『사회과학연구』 60권 2호, 527-547.
- 김해연(2016), 「비판적 담화분석」, 김해연, 김규현, 김용진, 박용예 외 4인 저, 『담화분석』, 종합출판 EnG, 311-333.
- 유동원(2018), 「중국의 외교 내러티브(Narrative) 연구」, 『중소연구』 42권 3호, 41-81.
- 이재신 · 김지은 · 류재미 · 강재혁(2010), 「기사 프레임과 장르가 댓글 유형에 미치는 영향」, 『언론학보』 54권 2호, 116-137.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원표(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임지룡(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권, 29-60.
- 장기영(2018), 「‘국내청중’ 대(對) ‘국외청중’: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 갈등과 전략」, 『아시아리뷰』 7권 2호, 63-86.
-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최태훈(2022),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맞선 환구시보 사설 비판적 담화분석-나르시시즘 · 체면 · 대국심리 프레이밍」, 『중국언어연구』 99권, 247-275.
- Fairclough, Norman/이원표 역(1995/2004), 『Media Discourse/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Isabela & Fairclough, Norman/김현강 · 신유리 역(2012/2015), 『Political Discourse Analysis/정치담화분석』, 박이정.
- 김용래(2019.12.04.), 「마크롱 “나토되사 발언 유지…러시아와 대화 나서야”」,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03400081> (검색일: 2022.07.27.)
- 김정은(2021.06.15.), 「나토 정상회의 “중국은 구조적 도전 야기…책임

있게 행동하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001800098> (검색일: 2022.07.24.)
문병기(2022.06.30.),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도전에 공동 대응” 첫 명
시」,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630/114213596/1> (검
색일: 2022.08.01.)

박대한(2019.11.08.), 「佛 마크롱 대통령 “나토는 현재 ‘뇌사’ 상태” 비
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8006000085> (검색일:
2022.07.26.)

이준희(2022.07.31.), 「왜 중국은 대만 코앞에서 싩탄을 퍼부었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93853_35680.html
(검색일: 2022.08.08.)

POLITICO(2022.03.17.), 「War in Ukraine is ‘electroshock’ for NATO,
says Emmanuel Macron」

[https://www.politico.eu/article/emmanuel-macron-tells-russia-war-
causes-electroshock-for-nato/](https://www.politico.eu/article/emmanuel-macron-tells-russia-war-causes-electroshock-for-nato/) (검색일: 2022.08.20.)

POLITICO(2022.04.27.), 「UK’s Liz Truss: NATO should protect Taiwan too」

<https://www.politico.eu/article/liz-truss-nato-taiwan-protect/> (검색
일: 2022.08.15.)

Foreign Affairs(2014.03.31.), 「Putin’s Brain: Alexander Dugin and the
Philosophy Behind Putin’s Invasion of Crimea」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fsu/2014-03-31/puti
ns-brain](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fsu/2014-03-31/puti
ns-brain) (검색일: 2022.08.09.)

<https://www.zhihu.com/topic/20027080/intro> (검색일: 2022.08.01.)

環球時報(2022.02.25.), 「自私和虛偽是華盛頓的戰略底色」

環球時報(2022.03.24.), 「碰瓷中國, “腦死亡” 的北約就能續命了嗎」

環球時報(2022.04.29.), 「“北約也應保護臺灣”？英外相又做帝國舊夢」

環球時報(2022.05.06.), 「日本不要成爲“北約亞太化”的帶路黨」

環球時報(2022.06.28.), 「亞太國家不應站在北約的危牆之下」

<https://opinion.huanqiu.com/editorial> (검색일: 2022.07.10.)

❖ ABSTRACT

A Critical Comparative Discourse Analysis on the Editorials of *Global Times* Relevant to Ukraine–Russia War and NATO:
NATO’s Asia–Pacific Expansion vs. Inviting the Wolf into the Room

Choi, Tae–Ho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pply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analyzed the discourse practices in which the “China Threat” raised by the United States, and NATO in the face of the Ukraine-Russia War has been transferred to the “NATO Threat” by the Global Times editorials. The fiv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related to “China Threat” and “NATO’s Asia-Pacific Expansion” addressed by United States and NATO were selected as sources for target analysis. First, this study described and interpreted the ways in which the editorials publicly named and shamed the United States and NATO countries during the war. Second, the features and aspects for which the editorials blamed the U.S. and NATO were analyzed, not because Russia invaded Ukraine but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NATO started the war. Third, the Chinese strategy that aims to divide and conquer NATO and related countries separately through the editorials against NATO's Asia-Pacific Expansion were explained. The results revealed the processes in which China has constructed counter-ideology, “Inviting the Wolf into the Room” against

NATO's Asia-Pacific Expansion. The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that have constructed the orders of discourse in the editorials display the patterns that the United States vs. China conflict has expanded through the Ukraine-Russia war to the U.S.-NATO vs. China-Russia conflict.

Key Words : Ukraine-Russia War, NATO, CDA, NATO's Asia-Pacific Expansion, Inviting the Wolf into the Room

■ 논문투고일 : 2022. 08. 30

■ 심사완료일 : 2022. 10. 01

■ 게재확정일 : 2022. 10. 04